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6년 8월 21일(주일) 제1112호

동경 온누리교회, 일본 중심부 신주쿠로 이전

신주쿠에서의 새 시대 활짝 ... “일본선교본부 역할 해낼 것”
일본인 더 사랑하고, 더 전도하고, 한국과 일본 친구되는 장소

동경 온누리교회가 일본수도의 중심부 신주쿠로 이전했다. 긴시초 지역에서의 15년 사역을 마무리하고, 신주쿠에서의 새 시대를 활짝 열었다.

지난 8월 14일 동경 온누리교회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재훈 담임목사, 당회서기 정파종 장로, 해외비전교회 협의회 강익선 장로, 서빙고 일본어예배부 신민호 장로, 김재일 장로, 두란노 Japan 대표이사 이운구 장로, 이철 장로, 손한기 장로, 이기복 교수,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의 이준규 대사, 보이스팩토리(테너 배재철 소속) 와지마 토타로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교회 이전을 축하했다.

그 자리에서 당회서기 정파종 장로는 “하나님이 동경 온누리교회 이전을 허락하신 것은 일본인을 더 사랑하고, 더 전도하라는 뜻”이라고 했고, 이준규 대사는 “동경 온누리교회가 한국과 일본이 친구가 되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며 축복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동경 온누리교회가 더욱 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 되어서 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낼 것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문봉주 목사는 “일본 선교에 여념없는 일본의 7개 비전교

회를 아우르는 일본선교본부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동경 온누리교회는 2001년 4월 7일 창립됐다. 장재운 목사에 이어 지난해 2월부터 문봉주 목사가 섬기고 있다. 차세대를 포함해 약 600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다.

〈관련기사10면〉

/ 정현주 기자



신주쿠로 이전한 동경 온누리교회 전경

온누리 공동체 하반기 개강

8월 27일부터 개강예배, 9월 3일 목양대회

온누리 공동체가 하반기 개강예배를 드린다. 8월 27일 양재 온누리교회 서초D공동체를 시작으로 9월 10일까지 공동체별로 하반기 개강예배를 드린다(표 12면). 9월 3일 토요일 오후 5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는 하반기 목양대회가 열린다. 목양대회는 온누리공동체 리

더십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전을 공유하고, 각오를 다지는 자리다. 장로, 권사, 총무, 순장, 다락방장, 대학청년부MC, 차세대 코치(총무) 등 공동체 리더십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목양대회에서는 신임 리더십(신임 순장, 신임 다락방장)임명식, 대학청년부와 차세대의 현재 상

황과 신앙전수를 위한 비전에 대해 나눌 예정이다.

2016년 하반기에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부흥축제, 10월 8일 영성수련회, 11월 22일과 23일 러브소나타 오사카 집회, 12월 12일부터 이듬해 1월 21일까지 40일 새벽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임직자스쿨 개강

9월 3일 오후 2시 서빙고 비전홀

임직자스쿨이 9월 3일 오후 2시 서빙고 비전홀에서 개강한다. 임직자스쿨은 서빙고 화요반과 양재 토요반으로 나뉘어 9주 동안 이어진다. 서빙고 화요반은 9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오후 8시 비전홀에서, 양재 토요반은 9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오전 10시 화평홀과 JDS 홀에서 열린다. 임직자스쿨에서는 ‘교회론과 목회철학’, ‘건강한 영성 건강한 리더, 세계를 품은 리더’,

‘안수집사와 권사의 모델’, ‘행복한 가정과 리더’, ‘부르심과 헌신’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수료하려면 개인영성훈련도 실시해야 한다. 10월 15일까지 신약성경통독, 새벽기도 20일 참석, 필독서 보고서 제출, 20일 말씀묵상 큐티노트 제출, 봉사활동 등을 완료해야 한다.

문의: 02-3215-3661(서빙고), 02-570-7311(양재)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확대당회

일시: 8월 27일(토) 오전 6시 서빙고 두란노홀
대상: 전임교역자, 사역, 시무, 명예, 협동 장로



올 여름 꼭 만나야 할 신앙의 선배들

1. 아름다운 빈손 한경직 목사
2. 일사각오(一死覺悟) 주기철 목사
3. 작은 예수 손양원 목사

60여 년 전, 전라남도 여수에 '사랑의 사도', '복음 전도자', '한센인의 친구', '원수를 사랑한 자'라고 불리던 사람이 있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자삼은 손양원 목사다. 사람들은 그를 '작은 예수'라고 불렀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제가 안내를 해드려도 될까요?”

손양원 목사 순교기념관을 둘러보던 기자에게 한 어르신인 말을 걸어왔다. 어르신의 친절이 감사할 따름이었다. 손양원 목사의 출생 당시를 이야기하던 어르신이 빛 바랜 사진 한 장을 가리켰다. 손양원 목사의 유족들이 애양원 사택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아기가 바로 접니다. 제가 손양원 목사의 막내아들 손동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태어났지요.”

화들짝 놀랐다. 우연히 만난 그 어르신이 손양원 목사의 막내아들이었다니... 그리고 보니 손양원 목사만 먼저 천국 간 동인, 동신 형제와 참 많이 닮았다. 손양원 목사의 막내아들 손동길 목사는 기념관을 찾는 이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인근에 거주하며 안내를 자처하고 있다.

우리 아버지 손양원 목사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따라 7살 때 입신했고, 17살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손종일 장로는 독립군들에게 자금을 지원하시던 분이셨어요. 할아버지가 3.1운동 주모자로 체포되자 아버지는 중동중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그곳에서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1939년 한센병 환자들의 초청으로 손양원 목사가 애양원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때 이름을 손연준에서 손양원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아버지가 한센병 환자들의 고픔을 입으로 빨아냈다는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아버지의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사랑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누님들은 아버지가 한센병 환자들만 좋아한다고 서운해 하기도 했어요.”

손양원 목사는 중증 한센병 환자들인 중환자실도 거침없이 드나들었다. 피고름이 가득한 환자들의 손을 잡고 환부를 입으로 빨아냈다.

또 손양원 목사는 부흥회나 신도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김없이 신사참배의 부당성을 외쳤다. 1940년 9월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다.

“아버지는 광주에서 옥살이를 했고, 가족들은 뽕뽕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동인, 동신이 형님이 부산 나무통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면

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당시 열 살 남짓한 동희 누님과 동장 형님은 고아원에서 생활한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견뎌야했지요.”

하나님 나라로 떠난 두 형님과 아버지

1945년 8월 15일, 종로의 보신각종이 33번 울리고 대한독립을 맞이했다. 손양원 목사도 다시 애양원으로 돌아왔다. 당시 손양원 목사의 자녀들은 애양원에서 20km 떨어진 순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동인, 동신 형님은 주민, 학생, 선생님들에게 인기가 참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키가 크고, 외모도 훤칠했거든요. 동인이 형님은 기독교 학생회 회장까지 맡을 정도로 믿음까지 좋다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두 형님은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보다 먼저 순교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1948년 10월 17일 14연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10월 21일 반란군들이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 동인, 동신 형제를 잡아들였다. 기독교 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미국유학을 준비한다는 것이 좌익이었던 반란군들의 눈엣가시였던 탓이다. 동인, 동신 형제는 반란군의 모진 매질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순교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반란군들이 두 형님을 친미주의자라며 매질을 했는데 참 어이가 없는 죄명이지요. 일찍이 하와이 디아스포라에게 시집을 간 아버지의 누님인 손봉연 고모가 동생은 옥살이를 하고, 조카들은 뽕뽕이 흩어져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카들을 유학 보내라고 권유한 것이었어요. 형님들의 장례식이 끝나고 주동자가 잡혔습니다.

범인은 동인이 형님과 같은 학교를 다니던 안재선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동희 누나를 나덕한 목사님에게 보내 그를 양자로 삼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이해해서도 안 된다고 울부짖는 동희 누나에게 아버지가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 전도하는

자로서 그가 지옥에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구나.”

손양원 목사는 딸 동희를 안재선의 집에서 하숙을 시키기도 했다. 안재선과 그의 가족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란 것이었다. 그 덕분에 안재선의 신앙이 나날이 성장했다. 시장에 나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을 치면서 복음을 전했다. 1949년에는 고려신학교에 입학해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선포하기도 했다.

1950년 9월 28일, 손양원 목사는 미평과수원에서 인민군의 폭행에 아래턱이 함몰되고, 무자비한 총탄에 순교했다. 손양원 목사가 여수에서 순천으로 압송되는 중에 천둥 같은 목소리로 인민군들에게 이렇게 소리쳤다고 한다.

“사람을 사랑하라.”

“그 일이 두 형님을 떠나 보낸 지 2년 후에 벌어졌습니다. 두 형님과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났을 거예요. 수천 명이 운집한 아버지의 장례식은 그야말로 눈물바다였습니다.”

안재선과 그의 아들 안경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던 날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사진을 보면 재선이 형님이 상주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 옆에는 동희 누님이 있는데 재선이 형님과 뽕뽕감치 떨어져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동희 누님은 단 한 번도 재선이 형님을 오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안재선은 손양원 목사가 순교한 이후 방황을 했다. 더 이상 신학교에도 다니지 않고, 순천에서 양식업을 하려고 했는데 금방 망할 수밖에 없었다. 안재선은 본가에서도 환영 받지 못했고, 손양원 목사의 가족들에게도 환영 받지 못했다. 그렇게 손양원 목사의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살았다. 그러다 1971년 안재선이 손양원 목사의 추모예배에 참석했다. 손양원 목사의 딸 손동희가 연락을 한 것이었다. 그 추모예배 자리에서 손동희가 처음으로 안재선에게 오빠라고 불렀다. 모든 것을 용서했다는 의미였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1973년 무렵 서울 모처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하고 있던 재선이 형

님을 찾아갔습니다. 형님을 설득해 같이 신학교를 다니고 싶었거든요. 거기서 ‘형님, 저랑 같이 신학교 다닙시다. 동인, 동신 형님 따라 전도자가 되겠다고 하셨잖아요’라고 했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니 고개를 꼭 숙이셨습니다. 슬하에 자녀들이 많아서 신학교를 다니면 자식들을 먹여 살릴 방법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형님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싶어서 꾸준히 연락을 했습니다. 재선이 형님의 장남인 경선이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경선이는 처음 보는 사람이 삼촌이라며 살갑게 구니까 당황하면서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손동길 목사가 신학교를 졸업하던 1977년 다시 한 번 안재선을 찾아가 신학교를 다니라고 설득했다. 그랬더니 안재선이 손동길 목사의 손을 꼭 잡고 “나는 다 됐다. 동생이 해라”고 말했다. 아마 안재선은 자신이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1979년 48세 젊은 나이에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바삭 마른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읊조리고, “아들아 네가 예수 잘 믿고 목사가 되길 바란다”는 유언을 남겼다.

“재선이 형님 가족들은 동인, 동신 형님과 관련된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선이 형님이 가족들에게 과거의 일을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살았던 거지요. 재선이 형님의 장남 경선이는 숨겨둔 가족이 있는 줄로만 알다가 그 사건을 알고 긴 세월을 방황했습니다. 그 긴 방황을 마치고 8년 만에 신학교를 졸업한 경선이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는 여수에서, 경선이는 경남 함안 손양원 목사 기념관에서 아버지의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와 용서, 사랑을 잃지 말라던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있지요.”



찾아가는 길

손양원 목사 순교기념관 주변에는 삼부자의 묘, 애양원, 애양원 교회가 있다. 한 시간 반 남짓이면 둘러 볼 수 있다. 손양원 목사 순교 기념관은 매주 주일과 명절 연휴에는 휴관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관람할 수 있다.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돌길 148
문의: 061-682-9534



▲ 손양원 목사의 장례식 사진
◀ 아버지 손양원 목사의 삶을 간증하는 손동길 목사



주일강단



박종길 목사

룻기는 한 가족이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은 미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중은 창대하고 기쁨으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다윗의 할아버지이며, 이새의 아버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을 데리고 갔고 룻은 그 아내가 됐습니다. 그가 룻에게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룻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13절).

룻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독특한 법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대속, 구속 기업을 무르다는 뜻을 가진 제도입니다. 보통은 잃어버린 것의 대가를 지불한 다음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해당하는 것이 네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 땅입니다. 유산으로 받은 땅을 빚지거나 다른 이유로 잃어버렸을 때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서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둘째는 자녀입니다. 상속할 자녀를 두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형제나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미망인을 취하여 자녀를 낳아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대혼인법, 형사취수라고 표현합니다. 셋째는 생명입니다. 친족 중에 누군가가 살해당했을 경우 그 생명을 대신해서 복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넷째는 권리입니다. 친족 중 하나가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었을 때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그 값을 치르고 노예나 종으로부터 속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는 고엘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합법적인 가족회이나 장로들의 공개재판을 통해서 고엘로 인정되고 행해지도록 했습니다. 네 가지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을 대신해서 갚아주는 사람을 ‘구속자’ 혹은 ‘대속자’라고 합니다. 구속자나 대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가까운 친척이어야 하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며, 지원해야 합니다. 나옴이는 땅을 잃어버렸고, 두 아들이 죽어서 대가 끊어졌고, 노예나 종으로 전락할 만한 어려움에 빠져 있었지만 고엘 제도를 통해서 나옴이와 룻이 보아스라는 구속자를 만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아스는 나옴이와 룻이 도움을 구했을 때 거절

하지 않고 도와주는 구속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나옴이와 룻이 잃어버린 땅을 다시 사서 돌려주고, 나옴이의 아들 말론의 아내였던 룻을 아내로 사서 나옴이와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룻을 거절하지 않았던 보아스처럼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 값을 대속하신 구속의 사랑입니다. 신약성서에 고엘과 같은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양 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행 20:28).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고전 6:20).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귀한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치르시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가져 얻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사람들은 거절하고, 배신하고, 등을 돌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킨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킵니다. “여자들이 나옴이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시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을 떨치기를 바랍니다. 그가 당신 인생을 회복시키셨으니 노년에 당신을 보살펴 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그 며느리이자 일곱 아들보다 나은 그 며느리가 그를 낳았으니 말입니다.’”(14~15절).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나옴이와 룻에게 자손을 주셨습니다. 나옴이와 엘리멜렉의 가문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옴이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에게서 이렇

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고 부르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셨으니 말입니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옴이라 부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으니 말입니다.’”(20~21절).

‘나옴이’라는 이름은 ‘즐거움’, ‘유쾌함’, ‘상냥함’,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나옴이가 사람들에게 ‘마라’라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마라는 ‘고통’, ‘괴롭다’, ‘쓰다’는 뜻입니다. 마라와 같이 쓰다 쓴 고통의 인생을 살던 나옴이가 보아스라는 구속자를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회복시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나옴이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는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모압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약속의 땅, 은혜의 땅, 소망의 땅을 찾아가야 합니다. 둘째,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나옴이와 룻의 회복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열고, 찾고, 얻게 해주십니다. 셋째, 미래를 기대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후회하고, 현재는 불평하고, 미래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심으로 과거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현재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미래는 염려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나옴이와 룻처럼 모압 땅을 떠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과거로 미래를 제한하지 않는다”

셋째, 하나님은 과거로 우리의 미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나옴이는 그 아이를 데려와 가슴에

품고 보살폈습니다. 이웃 여자들이 ‘나옴이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이며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16~17절).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 같았던 나옴이를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옴이의 과거로 미래를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로 미래를 제한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을 ‘오벳’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오벳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오벳과 같이 섬기는 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옴이와 룻에게 보아스가 구원자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과거가 가지고 있는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과거의 화려했던 영광과 비참한 실패로 미래를 판단하거나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나가는 것입니다”(벧 3:13-14).

바울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 다. 미래를 제한하지도 않았습니 다. 여러분, 지난 시간의 영광에 취해 있거나 지난 실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리 비천하고 부적절한 관계로 태어났고, 이방인이어도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신분으로 미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히 4:15-16).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룻기의 마지막은 족보로 마칩니다. 그 족보를 통해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인생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의 구속자요,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쿡(Cook)보디아,

Pole2공동체, 허기진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몸도 영혼도 허기진 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와 함께 복음을 전한 Pole2공동체 캄보디아 아웃리치에 동행했다. 맛있는 음식 먹고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치유되는 기적의 현장을 목도했다. “쿡(Cook)보디아, 주님과 함께 식사합시다!”라는 이름으로 이어진 5박7일 동안의 아름다운 여행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비행기 창문 사이로 내리쬐는 강한 햇볕이 이곳이 캄보디아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에서 가장 작은 나라지만 국토가 남한의 약 14배나 된다. 남쪽을 제외하고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산지 중앙에는 넓은 평원이 전개되어 있다. 마치 얇은 대접 모양의 지형이다.

캄보디아는 ‘앙코르와트’와 ‘킬링필드’로 유명하다. 9세기 자야바르만 2세가 주변 소국들을 정복한 뒤 앙코르를 수도로 왕조를 세웠다. 그것이 크메르 제국의 시작이다. 앙코르와트와 같은 유적들도 이 시기 군주들에 의해 건설되었다. 캄보디아는 1431년까지 전성기를 누리다 태국의 침략을 받고 쇠퇴하기 시작했다. 태국과 베트남의 지배를 번갈아 받으며 왕국의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정도였다. 1864년 태국과 베트남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프랑스에 도움을 청했고, 그때부터 통치권이 프랑스에 넘어갔다. 오랫동안 식민통치를 받았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먹고 살만한 나라였다. 그러나 1975년 공산주의 단체 ‘폴 포트’에 의해 전체 인구의 1/3(200만 여명)이 학살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학살 피해자들은 대부분 지식인들이었다. 그 여파로 캄보디아에는 고급인력 부족현상이 나타났다. 대학살 이후 동남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뒤쳐진 나라가 되었다. 1987년에는 1인당 GDP가 18달러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후퇴했다. 지금까지도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

먹고, 마시고,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오랜 시간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해 몸도, 마음도, 영혼도 허기진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기 위해 온누리교회 Pole2공동체가 뭉쳤다. “쿡(Cook)보디아, 주님과 함께 식사합시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허기진 그들의 영육을 채워줬다.

‘쿡(Cook)보디아’는 요리하다(Cook)와 캄보디아(Cambodia)를 합친 단어다.

캄보디아에서 7년째 ‘먹이는 사역’을 하고 있는 S선교사와 그의 제자 A자매가 Pole2공동체 아웃리치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Pole2공동체 쿡보디아팀을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던지 첫 만남부터 훈훈했다. 마치 엄마를 만난



캄보디아 아이들이 쿡보디아팀이 나눠준 ‘커리눔빵’을 먹으며 해맑게 웃고 있다.

것 같았다.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S선교사가 사역하는 센터까지 자동차를 타고 이동했다. 차창 사이로 보이는 풍경이 매우 혼잡했다. 낡은 오토바이와 자동차, 끼리끼리 뒤섞여 위태롭게 달리고 있었다. 뿌연 먼지도 자욱했다. 흙먼지를 뿜고 달려 S선교사가 사역하는 센터에 도착했다. 이곳이 바로 S선교사가 영육이 허기진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음식과 말씀을 먹이는 장소다.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에도 집중하고 있다. 현지 대학생들에게 한국어 가르치고, 매주 주일 제자 20명과 함께 예배도 드린다. 먹고, 마시고, 가르치고, 예배드리는 주님의 집이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녹록치는 않았다. S선교사가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 명 모이는 것도 쉽지 않았다.

“주일예배에 학생들을 초대했는데 한 명도 오지 않더라고요. 왜 오지 않는지를 물었더니 주일에 일하면 25달러를 벌 수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 가냐고 되묻는 아이에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들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복음을 전해야 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 끝에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예배에 오는 학생들에게 25달러씩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해 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어려운 기도제목을 즉시 응답해주셨다. 지금도 장학금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S선교사가 깨달은 것이 있다.

“복음과 음식은 같이 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배가 고프면 복음이 들어갈 힘이 없거든요. 배가 고프는데 누가 복음을 듣겠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예배를 드리고 나서 꼭 식사를 함

께해요. 그 한 끼가 가장 좋은 전도방법이에요.”

단순히 먹이는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S선교사가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이 있다. 공부다. S선교사는 제자들이 캄보디아 교육을 책임지는 리더로 성장하는 비전으로 품고 있다. 제자들이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캄보디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먼저 교육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제자 중에서도 A자매가 유난히 눈에 띄고, 애착이 간다.

“A자매를 처음 봤을 때 꼭 저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만 다듬어주고, 도와주면 잘 자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A자매는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S선교사 센터에서 영어반을 맡고 있다. 신앙도 나날이 성장했다. 불교신자였던 A자매는 늘 세상에 왜 이렇게 신이 많은지 궁금했다. S선교사를 만나 복음을 듣고 그 궁금증을 해소했다.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더 명확해졌다. 믿음도 확고해지고, 신앙심이 깊어졌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A자매의 가족들은 그녀가 집에 오면 “예수 왔네”라고 말한다고 한다. A자매는 지금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수의학을 공부할 수 있는 대학원에 서류를 보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S선교사는 A자매가 한국의 크리스천 교수님들 밑에서 지식과 영성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언어, 국경, 종교, 문화의 벽을 허물고

“천국 가지”

S선교사가 제자들을 예배로 초청하는 말이

다. 하나 둘 예배자리로 모인 제자들이 벌써 20여 명이나 된다. Pole2공동체 쿡보디아팀은 S선교사의 제자들을 축복하기 위해 점심식사를 준비했다. 그 식사자리에 제자 21명이 왔다. S선교사가 오길 바랬던 F형제도 왔다. F형제는 요즘 학교 일이 바쁘다며 예배와 모임에 참석이 뜸했다. S선교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F형제의 신앙이 다시 한 번 뜨거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Pole2공동체 쿡보디아팀은 그들에게 근사한 밥 한 끼를 대접했다. 스프와 빵으로 입맛을 돋우고,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스테이크를 내놓았다. 스테이크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런데 한 제자가 스테이크를 받고도 먹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S선교사에게 물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그들에게 스테이크는 흔한 음식이 아니다. 일류 레스토랑에서 파는 비싼 스테이크는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보다 훨씬 값진 음식임이 분명했다. 만찬을 마치고 그들을 위해 준비한 또 하나의 감동을 선물했다. 세족식이었다. Pole2공동체 쿡보디아팀은 정성껏 S선교사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기도해줬다. H자매와 I자매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발을 가장 하찮고 더러운 것으로 여긴다. 자신의 발을 씻겨주는 Pole2공동체 쿡보디아팀의 모습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보였다고 했다. 그녀들의 눈물이 언어, 국경, 종교, 문화의 벽을 허물었다. 서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애뜻해졌다.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주님 품으로

Pole2공동체 쿡보디아팀에게 또 다른 미션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합시다!”



1. L청소년센터에서 흥겨운 춤판이 벌어졌다. 2. 캄보디아인들에게 귀한 이·미용을 해주고 있다. 3. H자매가 세족식 중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주어졌다. 바로 S선교사 제자들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청해 밥을 먹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캄보디아 학생들을 위한 전도축제를 열었다. Pole2공동체 캄보디아팀은 어떤 음식을 대접할지 고민부터 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고민하면서 엄선하고 또 엄선해서 메뉴를 선정했다. 하루 1달러로 끼니를 해결하거나 오리알 하나로 한 끼를 해결하는 그들에게 정말 맛있는 요리를 대접하고 싶었다. 고민 끝에 선택한 메뉴는 소불고기, 제육볶음, 닭볶음면이었다. 정성들여 만든 음식을 내놓자마자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사라졌다. 정말 맛있게 먹었다. 어찌나 맛있게 먹던지 쌀 한 톨도 남지 않았다.

허기진 배를 든든하게 채워준 뒤에는 Pole2공동체 캄보디아팀의 콘서트도 막 올랐다. A자매의 간증도 이어졌다. 친구들 앞에서 담담하게 간증하는 A자매의 모습이 마치 사도 바울 같았다. Pole2공동체 캄보디아팀과 S선교사의 제자들이 손을 맞잡고 합심기도도 했다. 그 기도가 곧바로 응답됐다. 친구 따라왔다는 B형제가 만나질 만에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 처음에는 저 사람들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묻다가 나중에는 언제 다시 오냐고 물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궁금하다고 자신도 만나고 싶다고 고백했다. C자매는 평소 예수님에 대해 많이 들었다고 했다. 그래도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Pole2공동체 캄보디아팀의 밝은 표정을 보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다.

“어떻게 나눠주면서 좋아할 수 있어요?”

D형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최근 들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었다. 그런 그가 Pole2공동체 캄보디아팀을 만나면서 신앙을 회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허기진 배를 채워주었을 뿐인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프놈펜에서 차를 타고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 GK마을에 도착했다. 한적한 마을에 노랑, 파랑, 분홍으로 칠해진 집들이 참 예뻐다. 그곳에 사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어른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웅변해주는 것 같았다. 이 마을은 쓰레기 마을로 불리던 곳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옮겨온 곳이다. 쓰레기를 주우며 생활을 연명하던 사람들이 현자인 C목사를 만나면서 변화되고 이곳으로 이주했다. 그 과정에서 영육간의 상처와 아픔도 치유됐다.

이 마을에 사는 K할머니는 54세에 이웃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데 사위가 하나님 믿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결국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쓰레기마을을 전전하며 지내게 됐지만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던 그녀가 C목사를 만나서 이곳으로 오게 됐다. C목사는 토요일마다 GK마을을 방문해서 함께 성경공부를 하고, 기도제목을 나누고 있다. 이곳에 사는 30가정 중에 10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 마을이 조금씩 복음화 되면서 마을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도 달라졌다. 공장과 식당을 찾아가 생산적인 일을 시작했다.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자립심이 생긴 것이다.

Pole2공동체 캄보디아팀은 GK마을 주민들을 응원하는 따뜻한 밥 한 끼를 선물하기로 했다. S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센터에서 음식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는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음식이 도착하지 못한 것.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운동하고 찬양하며 기다렸다. 아이들은 Pole2공동체 캄보디아팀의 작은 몸짓 하나도 따라했다. 그 모습을 본 한 아주머니가 탬버린 같이 생긴 악기를 들고 나와 신나게 흔들었다. 절로 흥이 났다. 집 안에 있던 할머니도 흥겨운 소리를 듣고 문지방에 앉아 고개를 내밀고 쳐다보고 있었다. 그 사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음식이 왔다. ‘커리눔빵’이었다. 카레를 넣은 닭고기국에 빵을 찢어먹는 캄보디아 요리다. Pole2공동체 캄보디아팀은 따뜻한 커리눔빵을 한명이라도 더 나누어주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한 아이는 순식간에 해치우고 또 받아먹기 위해 허겁지겁 달려왔다. 배시시 웃으며 국그릇을 내미는 아이의 모습이 천진난만했다. 그 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여러 차례 음식을 받아 갔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퍼주고 또 퍼줘도 술에 국이 줄지 않았다. 배식하던 Pole2공동체 캄보디아팀원이 이렇게 말했다.

“어? 아직도 많이 남았네.”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닌가.

‘하하호호’ 한바탕 춤판이 벌어지고

하늘이 흐렸다. Pole2공동체 캄보디아팀은 캄보디아 시내를 지나 L청소년 센터를 방문했다. L청소년 센터는 우리나라 보육원과 같다. 그곳에서 지내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살거나 부모가 없다. 외로움 때문일까. 그 아이들은 Pole2공동체 캄보디아팀을 거부하지도 반기지도 않았다. 흐린 날씨처럼 그들의 마음도 흐렸다. 청소년 센터 아이들과 캄보디아팀 사이에 범접할 수 없는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다.

저녁식사 시간이었다. 잔뜩 흐린 날씨 탓에 하늘이 더욱 어두웠다. 그리고 십 여분 쯤 흘렀을까. 밥 위로 물줄기가 한 방울씩 떨어지더니 이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다들 식판을 들고 급히 센터 안으로 들어갔다. 그 비가 상상도 못한 천국잔치를 벌이게 할 줄 누가 알았을까.

비가 와서 밖에 나갈 수 없게 되자 심심해진 한 아이가 Pole2공동체 캄보디아 팀원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우리 함께 춤춰요.”

그렇게 시작된 춤판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끌어 모았다.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함께 춤추며 하나 되었다. 약 1시간을 음악에 맞춰 서로의 손을 잡고 돌면서 춤을 췄다. 청소년 센터 아이들과 Pole2공동체 캄보디아팀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도저히 열리지 않을 것만 같던 아이들의 마음이 함께 춤을 추면서 활짝 열렸다.

전날 밤 춤판의 감동은 다음날 사역자인 T마을까지 이어졌다. Pole2공동체 캄보디아팀이 음식을 준비하면서 아이들과 눈만 마주치면 신나게 울려퍼졌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아이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흥겨워했다. 맑은 하늘 아래 큰 나무 밑에서 함께 어우러져 찬양하는 모습이 꼭 에덴동산 같았다. 무엇이든지 풍족하다는 뜻을 가진 마을이름처럼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족해졌다.

Pole2공동체 캄보디아팀은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음식을 나누고, 복음을 전했다. 만나는 사람들과 하나 되었다. “주님과 함께 식사합시다!”를 외치면서 말이다.

캄보디아의 기독교 역사

“부흥, 위기, 회복”

캄보디아에는 숨겨진 그리스도인이 많다. 그만큼 종교성이 높은 곳이다. 19세기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당시 한국인들의 종교성과 많이 닮아있다. 캄보디아에 복음이 처음 전해진 것은 1923년이다. 미국 아더 헤먼드 목사와 그의 부인이 복음을 전했다. 그들은 프놈펜에 도착하자마자 성경번역 작업을 시작했다. 1934년에는 신약성경을, 1940년에는 모든 성경번역을 완료했다. 그렇게 번역된 성경을 반포해 1965년까지 2천여 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1975년 4월 17일 공산군 폴 포트가 프놈펜에 입성하면서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다. 폴 포트 정권은 크리스천이나 승려, 정치인, 지식인과 교사 등 누구든지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인사들을 학살했다. 사찰과 교회를 파괴하고, 도서관의 책들을 찢어 담배마는 종으로 사용했다. 당시 Ellison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교계 지도자나 목사 33명 중 27명이 굶어서 순교하거나 죽임을 당했다. 캄보디아 기독교인 중 90%가 순교당했고, 교회도 폐쇄되었다.

많은 성도들이 태국과 베트남 국경에 있는 난민촌으로 피신하였고, 그곳에서 어렵게 신앙을 이어갔다. 살아남은 캄보디아 기독교인 200여 명이 프놈펜의 옛 시장에 모여 지하교회를 시작했다. WCC의 Jean Clavaud 목사가 캄보디아에 성경책을 밀반입해서 프놈펜 교회지도자들에게 전해졌다.

1990년 4월 9일 캄보디아 정부가 교회를 인정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1993년 9월 노로돔 시하누크가 왕위에 오르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새 헌법을 제정했다. 국교인 불교에 더하여 이슬람교와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했다. 그러자 난민들도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곳곳에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했다. 캄보디아의 기독교는 지금 회복의 역사를 쓰고 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영등포구로공동체, 남원시 아영면을 복음으로 물들이다

지난 13일, 전북 남원시 아영면 곳곳에 ‘서울 온누리교회 농촌봉사활동’이라는 플랜카드가 붙었다. 이 지역교회 목회자들은 물론 주민들도 한껏 기대를 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로공동체 아웃리치는 전북 남원시 아영면 남원 사랑의교회와 함께 서부교회에서 진행됐다. 낮에는 발마사지, 이·미용, 침술봉사, 여름 성경캠프가, 저녁에는 마을잔치와 남원 러브소나타 집회가 막 올랐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남원 사랑의교회 오준희 목사와 갈계서부교회 김승택 목사가 들뜬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나 반가운 손님들이 오기에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을까. 해발 500m가 넘는 산골에 있는 교회에 모처럼 손님이 온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였다. 전북 남원시 아영면은 산간지역이다. 신앙적으로는 무속신앙과 불교가 득세하는 지역이다. 기독교에 대한 텃세도 몹시 심한 곳이다. 예를 들어 면에서 행사가 열리면 인근 사찰 스님은 내빈으로 초대해도, 목회자는 초대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온다는 플랜카드를 걸었다고 민원이 넣을 정도다. 척박한 만큼 복음이 절실한 곳이다. 바로 그곳으로 온누리교회 영등포구로공동체가 아웃리치를 갔다.

역사적인 단체사진

남원 사랑의교회 옆 나무그늘 아래 염색 약을 바른 어르신들이 영등포구로공동체 지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폭염특보가 발령된 무척 더운 날씨였지만 이·미용 봉사를 받으러 온 주민들이 정말 많았다. 그만큼 인기가 좋았다.

“시원한 물 한잔 드릴까요?”

교회에 어렵게 발걸음한 어르신들을 안내하던 서미순 사모(사랑의교회)의 표정이 얼마나 밝고 예뻐했는지 모른다. 얼마나 좋은지 계속 웃어댔다.

“어르신들께서 교회에 오셨잖아요. 역사적인 일이에요.”

그만큼 이 지역에서 목회하는 것이 어렵다. 그런데 어르신들 스스로 교회에 왔으니 서미순 사모가 그리 좋아할 수밖에.

마침 주민 구덕순(63세)씨도 어려운 발걸음을 했다.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나무그늘 아래 평상에 걸터앉았다. 염색을 하러 온 것이다. 구덕순 씨는 친절한 미소로 반겨주는 영등포구로공동체 지체들과 남원 사랑의교회 서미순 사모의 친절에 몸 둘 바를 몰라 했다. 그래도 아웃리치팀의 섬김이 마음에 쏙 드는지 활짝 웃어보였다. 나무그늘 아래서 염색을 하면서



영등포구로공동체 아웃리치팀은 발마사지, 이·미용, 침술봉사로 아영면 어르신들을 극진히 섬겼다.



영등포구로 아웃리치팀원들과 대화를 나누던 구덕순 씨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이 더운 날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납니다.”

마을 주민들이 진심을 알아주기 시작했다. 웬지 예감이 좋았다.

그 시각, 남원 사랑의교회 분당에서는 발마사지가 한창이었다. 어르신들이 줄지어 누워 발마사지를 받고 있었다. 아웃리치팀원들은 발마사지를 하면서 열심히 전도했다. 어르신들과 아웃리치 팀원들이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는 풍경이 마치 명절날 모인 가족 같았다. 예수 믿지 않는 어르신들이 훨씬 많았지만 하나같이 영접기도를 따라하였다.

한참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던 서미순 사모가 기자에게 부탁을 했다.

“어르신들 사진 좀 찍어주세요. 생전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이예요. 그 감동적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두고 싶어요.”

그 사진이 바로 남원 사랑의교회 창립 이후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 찍은 단체사진이었다. 서미순 사모의 말대로 역사적인 하나님의 사건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 한명 없는 매산마을에서 생긴 일

영등포구로공동체는 전북 남원 아영면 갈계서부교회에서도 발마사지와 침술봉사를 했다. ‘예수님이야기’를 주제로 여름 성경캠프도 진행했다. 지역 아이들 30여 명이 모였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모인 것이다.

갈계서부교회 김승택 목사에게는 간절한 기도제목이 있다. 갈계마을 바로 옆에 있는 매산

마을을 위한 기도제목이다. 매산마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주민 대부분이 원불교 신자다. 마을에 원불교 교당까지 있어 복음전하기가 정말 어려운 곳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지 않는가.

희망적인 갈계서부교회 김승택 목사를 비롯한 성도들의 지극한 섬김으로 주민들이 닫힌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있다. 온누리교회 아웃리치팀이 지난 5년 동안 빠짐없이 매산마을을 방문해 섬긴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매산마을 주민들이 조금씩 교회에 호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영등포구로공동체 아웃리치팀에게 특명이 주어졌다. 매산마을 어르신들을 남원 러브소나타에 초대하는 것이었다. 앞서 언급한대로 매산마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아웃리치팀원들이 직접 마을회관으로 찾아가 봉사하고, 집회에 초대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매산마을 어르신 십여 명이 남원 러브소나타 집회에 참석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마을에서, 그것도 십여 명이나 되는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여는 행사에 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김승택 목사는 영등포구로공동체 아웃리치를 통해 드디어 매산마을에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했다면서 감격했다. 뿔 듯이 기뻐하던 김 목사의 얼굴이 지금도 선하다.

남원 러브소나타, 그 놀라운 은혜

남원 러브소나타가 열린 장소가 발 디딜 틈이 없을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매산마을 어르신 십여 명과 갈계마을 주민 등 100명이 참석했다.

빨간 나비넥타이를 맨 정광렬 장로의 인사로

남원 러브소나타 집회가 막 올랐다. 찬양, 위십, 난타, 국악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다. 특히 평균연령 80세가 훌쩍 넘는 ‘행복난타팀’의 공연이 어르신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저렇게 건강한가 봐 나도 예수 믿어야겠네”

어르신들은 난타공연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이어 국악공연이 이어졌다. 미션스쿨인 남원국악예고 학생들이 공연을 선보였다. 신명 나는 국악공연에 어르신들이 어깨춤으로 화답하였다. 영등포구로공동체 담당 여성민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어르신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했다. 여 목사의 초대에 어르신들이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 저녁식사에 술이 없다고 소리치던 어르신도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남원 사랑의교회 오준희 목사와 갈계서부교회 김승택 목사는 두 교회가 창립한 이래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교회에 모인 것도, 영접기도를 한 것도 처음이라고 했다. 마을 주민들도 남원 러브소나타가 무척 만족스럽다고 했다. 오종근(50세)씨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면서 “농번기가 끝나면 꼭 예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튿날 아침, 농번기가 끝나면 예배를 드리겠다고던 오종근 씨가 교회에 왔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농번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야지요.”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하나 더 있었다. 아웃리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남원 사랑의교회 오준희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

“제가 이곳에서 15년 동안 사역했지만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솜사탕보다 달콤하고, 엄마 품보다 따뜻한

간사 아웃리치팀,
여서도를 다녀오다

“전도사님 없으면 죽어도 못 살제.”
여서도교회 이정덕 전도사가 주민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묻자 김종심 할머니(81세)가 하신 말씀이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다. 이정덕 전도사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표정, 말투, 눈빛에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주민들에게 이정덕 전도사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고, 이정덕 전도사에게 주민들은 행복의 근원이다. 전라남도 완도군 여서도에는 솜사탕보다 달콤하고, 엄마 품보다 따뜻한 사랑이 있다. 간사 아웃리치팀이 그 섬에 다녀왔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는 완도군에 속한 섬 중에서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그곳에 온누리교회 간사 아웃리치팀이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름 대한민국을 돌아다닐 만큼 다녀왔다고 자부(?)하던 기자도 처음 들어보는 섬이었다. 호기심에 동행했다.

서울에서 차로 5시간, 뱃길로 3시간을 달려 여서도에 도착했다. 여서도는 면적 251km²로 여의도(2.9km²)보다 약간 작다. 한때 주민 1,200여 명이 넘게 살았는데 지금은 8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여서도(麗瑞島)’는 ‘천혜의 아름다운 섬’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여서도에서 눈을 두는 곳마다 아름다움이 가득했다. 선착장에서 섬을 바라보면 동백나무와 후박나무가 한 눈에 들어온다. 녹음이 얼마나 짙는지 모른다. 그 사이로 아담한 집들이 층층이 자리 잡고 있다. 거친 태풍을 피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쌓은 돌담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예쁜 벽화가 그려진 집이 한 채 있는데 그곳이 바로 여서도교회다.

여서도교회는 1986년 건축되었다. 나부귀 전도사가 개척했다. 나부귀 전도사가 여서도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전도한 덕분에 성도들이 나날이 늘었다. 그런데 나부귀 전도사가 병에 걸려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다. 박지영 전도사가 바통을 이어 받아 사역하다 숙환으로 소천했다. 그 다음 부임한 사람이 바로 이정덕 전도사다. 그녀는 부산 출신으로 뉴질랜드에서 선교를 했다. 귀국 후에는 부산에서 사역했는데 그때 ‘섬사역’에 관심을 갖게 됐다. 부산에서 완도까지 왕래하다가 여서도교회의 상황을 듣게 되었다. 당시 여서도교회는 박지영 전도사가 소천한 뒤 7년 동안 비어있었다. 여서도교회를 섬기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듣고 처음에는 거부했다. 거리가 멀었지만 자신이 왜 여서도교회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왜 제가 가야합니까?”

그기도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하셨다.

“네가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정덕 전도사는 영문을 알 수 없었다. 그런

전남 완도 여서도교회 이정덕 전도사와 주민들



간사아웃리치팀, 여서도교회 앞에서.

고백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사명’이라는 찬양이 떠올랐다.

“힘한 산도 나는 관촬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관촬소~♪”

이 찬양은 이정덕 전도사가 부산에서 교회를 섬길 때 1년 넘게 불렀던 찬양이었다. 성도들이 이제 그만 다른 찬양을 하자고 할 정도로 열심히 불렀다.

“네가 그러지 않았느냐. 바다 끝이라도 가겠다고 했으니 순종해라.”

그 음성엔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여서도로 향했다. 그날 또 한 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경험했다. 여서도에서 나부귀 전도사를 만난 것이다. 당시 요양 중이던 나부귀 전도사가 마지막으로 여서도교회를 살피러 왔는데 바로 그날 이정덕 전도사가 여서도에 온 것이다.

“서로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만난 것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지요.”

오직 찬양과 기도, 그리고 예배

이정덕 전도사는 2014년 8월부터 여서도교회에서 사역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7년 동안의 공백이 쉬이 메워지지 않았다. 낡은 교회는 청소하고, 수리했지만 성도가 없었다. 그렇다고 예배를 멈출 수는 없었다. 7개월 동안이나 홀로 찬양하고, 예배드렸다. 정말 힘들고, 절망감이 들 때마다 구석진 바닷가를 찾아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나지 않았다. 그녀에게 힘을 준 것은 오직 찬양과 기도, 그리고 예배뿐이었다.

어느 날 차매에 걸린 할머니 한 분을 만났다. 식사도 같이하고, 노래도 불렀다. 조금씩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찬양이 흘러나오는 TV를 틀어놔는데 그 할머니가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초점이 흐리던 눈빛도 분명해지고,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때로는 이정덕 전도사에게 고맙다고 인사도 했



다. 그 할머니가 이정덕 전도사가 부임 한 이후 여서도교회의 첫 번째 성도다. 그 뒤로 성도가 늘기 시작했다. 김종심 할머니(81세)도 그 뒤에 교회에 나왔다. 김종심 할머니는 노래를 배우고 싶어서 교회에 왔다.

“나는 노래 배우려고 왔지. 예수는 안 믿소잉.”

이정덕 전도사는 김종심 할머니의 말에 “지금 믿지 않아도 되요.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믿는 게 좋아요”라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고 한다.

“그래도 안 믿소잉!”

그렇게 단호하던 김종심 할머니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은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다. 매일 저녁예배를 드린다. 비바람이 심할 날에는 행여 다칠까 교회에 오지 말라고 만류해도 꼭 온다. “바람이 불어도 예배는 드려야지”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믿음이 보석보다 귀하다.

이준호 목사(목회지원실)가 이번 아웃리치에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김종심 할머니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여서도교회와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이정덕 전도사는 주민들을 위해 사는 사람이 분명하다.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발 벗고 나선다.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손도 거든다. 일주일에 두 번은 삶은 달걀과 음료수를 들고 여서도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을 전도한다. 여서도교회 냉장고가 그녀의 인심이 얼마나 좋은지를 웅변해준다. 항상 먹을 것이 풍성하다. 그녀가 먹을 것을 좋아해서가 아니다. 여서도교회에 오는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고 무엇이라도 먹여 보내려고 가득 채워둔 것이다. 간사 아웃리치팀이 교회 벽에 페인트 칠을 마치자 이정덕 전도사가 슬쩍 다가왔다.

“주민들의 집도 낡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도 페인트를 칠해 줄 수 있겠어요?”

그 제안을 흔쾌히 허락하고 이정덕 전도사가 알려준 집으로 찾아갔더니 집주인 김충임(82세) 할머니가 깜짝 놀랐다. 이정덕 전도사가 부탁해서 왔다고 했더니 “항상 주민들을 먼저 생각해주는 고마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정덕 전도사는 올해 68세다. 이제 은퇴를 준비해야 할 나이지만 여서도교회를 생각하면 힘이 난다.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는 한 여서도교회와 주민들을 섬기는 것이 그녀의 목표이다. 여서도의 복음화도 꿈꾸고 있다. 그녀는 올해 첫날 하나님께 열 가정을 전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전도하고 있다.

이촌공동체_아프리카 E국



조성현 집사
(이촌공동체)

우리 공동체는 7월 19일부터 5박 8일 일정으로 아프리카 E국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올해 여름 아웃리치를 위해 작년부터 1년 가까이 기도해 왔다.

12명의 팀원 중에 아무도 그 땅을 밟아본 적이 없었지만 아프리카 E국은 매우 친숙했다. 6.25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를 위해 참전한 나라이기도 하고, 커피로 잘 알려진 나라이기에 더 친숙하고 정이 갔다. 아프리카 E국은 정교 40%, 이슬람 40%, 개신교 20%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종족에 따라 종교가 확연하게 다르다.

우리는 520kg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짐을 준비했다. 그곳에서 한국 물품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는 선교사님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520kg의 짐을 24개로 나눠 비행기에 싣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프리카 E국으로 향했다.

아웃리치 첫날, 아프리카 E국 수도를 거쳐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G지역으로 들어갔다. 인천공항을 출발한지 무려 25시간 만이었다. G지역은 95%가 무슬림이었다. 선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임이 분명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오지에도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계시다는 점이다. 의사, 교수 등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이 먼 곳까지 와서 열심히 사역하는 모

습을 보면서 숙연해졌다.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곳에서 한 영혼도 잃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여기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이 지역을 붙들고 있는 이슬람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아프리카 E국의 수도로 돌아온 우리는 선교사 자녀들을 교육하는 학교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길거리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현지인 선교사님, 무슬림 전방선교를 하고 있는 외국인 선교사님, 83세에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K선교사님 등을 만나서 교제했다. 정성스레 준비해 간 스포츠용품과 각종 어린이용품, 약품, 한국식품, 후원금 등을 전달해드리고, 그 땅의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예배도 드렸다.

우리 팀이 아프리카 E국을 찾은 주요한 이유는 K선교사님을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K선교사님은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국내 유명 의과대학 교수직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셨다. 아프리카 E국에서도 오지인 G지역을 개척하고, 의료보건 사업을 펼치던 중 질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됐다.

K선교사님은 진솔하고 담담하게 그동안 겪은 어려움과 간증을 해주셨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련 속에서도 보석과 같이 빛나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프리카 E국의 영혼들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선교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위로했다.

열방을 축복하는 인생



치열한 영적전쟁을 하고있는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온 이촌공동체 성도들.

주일에는 현지인 교회와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흠바다, 천막으로 이루어진 조악한 교회였지만 그들이 절실하고 간절하게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3-24).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 산이 들리

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개인과 가정, 교회, 나라가 변화하고, 열방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순조로운 아웃리치가 되도록 재정과 물품 지원, 끊임없는 기도로 함께해준 공동체 지체들에게 감사하다. 지체들의 기도로 출입국 과정과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욱 끈끈하게 협력한 귀한 시간이 되었다.

이제 아프리카 E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이웃사랑, 열방사랑’이라는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여호수아 공동체_일본 후쿠오카



옥인경 자매
(여호수아공동체)

나는 약 두 달 전, 일본 구마모토 지역 지진피해 복구 활동에 참여했었다. 이번 일본 후쿠오카 여름 아웃리치는 두 번째 방문이었다.

나는 미술을 전공했다. 그런 나에게 일본은 첫 번째 개인전시를 할 수 있는 작은 부스를 마련해준 곳이다. 갖고 싶은 디자인 상품들이 즐비한 곳이기도 하다. 장인정신이 깃든 먹거리가 풍성한 곳이며, 강한 개성이 드러나는 패션이 공존하는 매우 부러운 나라이다. 한편으로는 과거 역사로 내 마음 속에 선을 그어놓은 곳이기도 하다. 이것이 여행자로서 일본을 바라보던 나의 시각이었다.

그러나 구마모토 지진구호 활동을 위해 방문했던 일본교회들을 보고 혼란에 빠졌다. 힘겹게 사역하시는 일본 목사님들과 교회환경 때문이었다. 전에는 절대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보였고, 절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알아가면서 일본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믿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나는 그 혼란스러움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다시 한 번

후쿠오카를 방문했다.

우리 팀은 교회 형태는 없지만 일본 사회에서 묵묵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사역에 발맞춰 아웃리치를 실시하였다. 선교사님은 관계전도를 통해서 일본인들을 전도하고 계셨다. 먼저 일본 사회 속으로 들어가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그리스도의 영원한 씨앗을 심고, 양육하고 있었다.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양육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계셨다.

우리 팀의 주된 임무는 후쿠오카 시내에서 노방사역을 통해 관계전도로까지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것을 위하여 풍선아트, 비누공예, 태권무와 캘리그래피 등을 준비했다. 일본어로 제작한 전도지도 준비하고, 일본어도 연습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셨다.

사실 노방전도를 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아니 어렵다고 느꼈다. 나는 노방전도가 어려운 이유를 일본의 상황 탓으로만 돌렸다. 일본 문화, 일본 사람들의 성향, 무더운 날씨 등은 좋은 핑계거리였다. 하지만 그곳은 서울과 다를 바 없는 곳이었다. 그동안 나는 좋은 교회에서 양육 받고, 수없이 많은 설교와 각종 세미나 및 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리스도

선교사님을 보면서...



무더운 날씨에도 노방사역으로 복음을 전한 여호수아 공동체 청년들.

인의 사명을 다했다고 믿어왔다. 내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적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그런 내가 일주일 동안 노방전도를 하고, 일본인들과 친구가 되었다고 한 것이 어찌면 큰 욕심이고, 자만이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단 한 명의 영혼도 놓치지

않으려고 발걸음을 내딛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많다. 섬김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됐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깨닫고 회개했다. 나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산본안산공동체_동아시아 B국



이상욱 집사
(산본안산공동체)

우리 공동체는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아웃리치에 집중하다가 올해 아웃리치는 동아시아 B국을 다녀왔다. 집회 참석자 한국에 오신 공동체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에 가보고 싶어하였다. 올해 초부터 아웃리치 참가자를 모집하고, 회비를 모금했다. 기도회를 통해 아웃리치 분위기를 계속 확산시켰다. 선교사님의 기도제목을 놓고 권사회와 순별로 중보기도를 했고, 사역지의 요청사항도 꼼꼼하게 챙겼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동아시아 B국에 드디어 도착했다. 현지는 우기 끝자락이라 비가 계속 왔다. 그래도 다행히 이동 중이나 밤에만 비가 내려 우리가 사역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비가 더위를 식혀줘서 좋았다. 선교사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격려해주셨다.

고산지대에 있는 A족을 방문하는 날이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다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가슴 쓸어내리는 위험을 극복하고 A족이 살고 있는 마을에 도착했다. 그곳에 있는 허름하고 낡은 벽돌로 지어진 교회를 방문했다. 멀리 한국에서 손님들이 왔으며 마을에서 1시간 넘게 떨어진 읍내에 나가

사온 과일을 대접해 주셨다. 그 정성이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내어준 음식을 보면서 정말 큰 사랑을 느꼈다. 우리가 준비해 간 사랑보다 훨씬 컸다.

현지 어린이들이 준비한 찬양과 율동도 우리를 감동시켰다. 우리 팀은 화답으로 찬양을 들려줬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었다. 그들과 짧은 교제를 나누고 헤어지는 발걸음이 못내 아쉬워 자꾸 뒤를 돌아봤다.

또 다른 소수민족인 B족도 방문했다. 그곳에서는 이번 아웃리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때 묻지 않은 청정마을에 사원탐과 신을 섬기는 것만이 펄럭이고 있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한다. 그곳에서 온누리교회 외국어 예배에 출석하고 있는 형제의 집을 방문했다. 그 형제는 그곳으로 아웃리치를 왔던 온누리교회 자매와 사랑에 빠져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타국에서 홀로 지내는 아들을 걱정하며 눈물짓는 그 형제의 부모님을 만났다. 아들 걱정으로 한숨 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해졌다.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그 집과 마을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

현지에서 사업선교(BAM, Business As Mission) 모델을 접목해 성공적으로 선교하고

든든한 후방 지원군으로서



산본안산 공동체가 찬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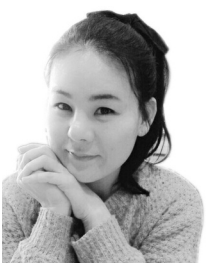
있는 외국인 선교사님의 간증도 들었다. 그분은 현지인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멘토가 되어주고, 공동체 신앙생활을 통해 제자를 양육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새로운 선교 방법 사례를 들은 것 같아 뜻 깊었다. 안식년으로 쉬고 계시던 또 다른 선교사님은 우리가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오셨다.

수 년 동안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아웃리치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선교사님과 선교지에 지속적으로 관

심을 갖고, 중보기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다. “영적전쟁의 맨 앞에서 싸우는 선교사들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기도로 후원해주는 지원군이 없으면 힘들다”는 말씀을 듣고는 무척 송구했다.

이번 아웃리치는 선교의 지평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다. 든든한 후방 지원군으로서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중보기도 할 것이다. 선교의 불씨가 계속 타오르기를 소망한다.

서빙고 유아3부_경남 통영 두미교회



임미진 교사
(서빙고 유아3부)

서빙고 온누리교회 차세대 유아 3부 교사들이 경남 통영 두미교회에 있는 두미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두미교회는 103년 전에 세워졌다. 두미도에는 70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명 정도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 오랜 기독교 역사가 있고, 다른 종교 시설이 없는데도 복음화가 되어 있지 않은 작은 섬이다.

서울에서 통영까지 차를 타고 이동하고, 통영에서 두미도까지 배를 타고 갔다. 긴 여정이었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있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하루 종일 불어오는 습한 바닷바람이었다. 바닷가니까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더운 날씨에 고생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직접 경험했더니 견디기가 쉽지 않았다. 정말 숨이 턱턱 막혔다. 그 후답지근하고 끈적거림은 정말 참기 힘들었다. ‘살아낸다’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 어떤 선교지를 가더라도 그곳에서 살아내는 것이 선교라는 생각했었는데 그 생각을 몸소 체험했다.

우리는 두미교회와 교회 주변 집들의 외벽에 페인트칠을 했다. 아이들 섬기는 사역에 익숙했던 터라 페인트칠을 하는 사역이 생소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음이 감사

했다. 힘든 일마저 즐거웠다. 탕벌에서 페인트칠을 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지만 정말 행복했다. 땀이 비 오듯 흘렸지만 말이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을 참고, 주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뿌듯했다.

그곳에서 섬김의 기쁨이 무엇인지 맛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참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느낄 수 있었다. 절대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휴식시간에 두미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페인트칠보다 목사님 부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한 사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육지와 떨어진 섬에서, 그것도 노인들만 사는 곳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셨다. 육지에 사는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대화가 그렇게 그림자라고 하셨다. 목사님 내외와 나는 대화는 그분들에게 꼭 필요했던 부분이었다. 사모님은 우리가 페인트칠을 해준 것도 고맙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눠 준 것이 더 특별하고, 좋고, 감사하다고 하셨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느꼈던 은혜들을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공감하는 대화를 하면서 어느새 피곤함을 잊었다.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아웃리치 둘째 날은 교회 이웃집 담장을 칠했다. 첫날보다 햇볕이 더 뜨거웠다. 일하기에는 무척 더운 날씨였지만 페인트칠하기에는

날마다 새 힘을 주시기를



교회주변 어르신 집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1차 페인트칠한 것이 금세 말라 덧칠도 금방 끝낼 수 있었다. 더운 날씨에 불평보다 감사가 먼저 나왔다. 집주인 아저씨가 우리에게 무척 고마워하며 교회에 열심히 나가겠다고 하셨다. 참 흐뭇하고 뿌듯했다.

나는 섬마을 사람들은 심심해서라도 교회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어르신들은 본인의 의지보다 자녀들의 의견을 따르고 있었다. 자녀들이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면 어르신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다. 가까이 다가와 있는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모

습이 정말 안타까웠다.

우리는 손수 만들어진 말씀부채 50개를 선물했다. 에어컨이 없는 마을에서 조금이라도 더 시원하게 여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도 함께 드렸다.

사람이 많지 않은 지역이라고 관심에서 제외되지 않기를, 복음이 구석구석 전해지기를 기도한다. 그곳에서 고생하시는 목사님 내외분의 삶에도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지치지 않고 우울함 틈 없이 하나님이 날마다 새 힘을 주시기를 간구한다.

“선교사령부 역할을 감당하라”

동경 온누리교회, 신주쿠(新宿)로 예배처소 이전

동경 온누리교회가 신주쿠(新宿)로 예배처소를 이전(移轉)했다. 신주쿠는 동경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이다. 신주쿠역을 중심으로 일일 유동인구가 무려 360만 명이 넘는다. 세계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문봉주 목사에게 동경 온누리교회가 신주쿠로 이전한 배경과 의미,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은 문 목사와의 일문일답.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동경 온누리교회를 이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해 2월 동경 온누리교회에 부임했는데 처음에는 몰랐던 장소 관련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동경 온누리교회는 8층짜리 건물 중에 두개 층을 임대해서 교회로 활용했는데 적잖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교회에 유모차를 끌고 오는 젊은 엄마들이 많은데 유모차를 둘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장소가 협소했습니다. 자전거 주차공간은 말할 것도 없었지요. 또한 건물주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방음공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방음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소음문제가 불거졌습니 다. 찬양 연습을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시끄럽다는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한번은 토요일에 성가대 연습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찾아 왔더라고요. 교회 주변 주민들이 찬양 연습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신고를 했더라고요. 소리 높여 찬양 부르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공간도 협소해 예배처소를 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물주와 교회인근 주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까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주쿠에서 마땅한 건물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1년 동안 마땅한 건물을 찾아다녔 습니다. 한계도 있었습니다. 기존 동경 온누리 교회로 사용하던 임대료로 새로운 건물 전체를 빌려야 했습니다. 또다시 건물의 일부를 빌려서 교회로 활용하면 예배처소를 이전 안 한 것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번두리나 부둣가에 있는 폐창고 위주로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마땅한 건물이 나타나지 않았 습니다. 시설이 괜찮다 싶으면 주변 여건이 여 의치 않거나 건물주가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꺼렸습니다. 이번에 이전한 건물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동경 한복판에 우리의 조건과 딱 맞는 건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존 임대료로 이 건물을 통째로 7년 동안이나 빌렸 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건물을 보기 일주일 전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동경 온누리교회를 중심부로 보내니 이제부터 선교사령부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이 건물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처소라고 확신합니다.”



교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건물주가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2월 목회사관학교 참석 차 한국에 와 있는데 재정담당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건물주가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건물주가 온누리교회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온누리교회가 건강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계약을 한 것입니다. 과정은 힘들었지만 온누리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는 교회라는 것을 인정 받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새로운 예배처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배처소를 이전했다고 교회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일본 에 비전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Acts29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에 세워진 비전 교회는 모두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일본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일본어로 설교를 합니다.

예배처소 이전으로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일본인과 한국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에 있는 7개 비전교회를 아우르는 선교본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이 건물을 선교본부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경 온누리교회가 선교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동경 온누리교회 뿐만 아니라 모든 온누리교회가 굳건하게 서있어야 Acts29 비전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처소를 이전하는데 도움을 주신 이재훈 담임목사님과 장로님들, 기도로 힘을 보태준 많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응원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새로운 예배처소는

▶ 예배처소를 이전하는 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기도의 힘으로 이겨냈다. 동경 온누리교회가 더 많은 일본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점이 됐으면 좋겠다.

/ 이리에 쿠니히로 집사

▶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겨 너무 좋다. 주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자유롭게 드나드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기쁘다.

/ 카사하라 코타 형제

▶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하게 된 예배처소를 잘 활용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길러내고, 전도했으면 좋겠다. 일본 비전교회들과 더욱 협력하고 싶다.

/ 장우진 장로

▶ 새로운 예배처소를 통해 일본인과 한국인이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갓으면 좋겠다.

/ 마츠시마 유키코 집사

관 김형철 담임목사 위임예배

지난 17일, 관 온누리교회가 김형철 목사 담임목사 위임예배를 드렸다. 미주 온누리 비전교회 네 번째 담임목사 탄생이다.

지난 17일 관 온누리교회에서 드린 위임예배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서약과 선포로 하나 된 축제의 장이었다. 이재훈 담임목사를 비롯해 관 온누리교회로 이웃리치를 온 서초 D공동체, 데이비드 오웬 총장(Pacific Islands University)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형철 담임목사 위임예배는 Acts29본부 장 윤길중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구재영 장로의 대표기도, 서초D공동체의 특송, 이재

훈 담임목사의 메시지, 위임 및 서약, 데이비드 오웬 총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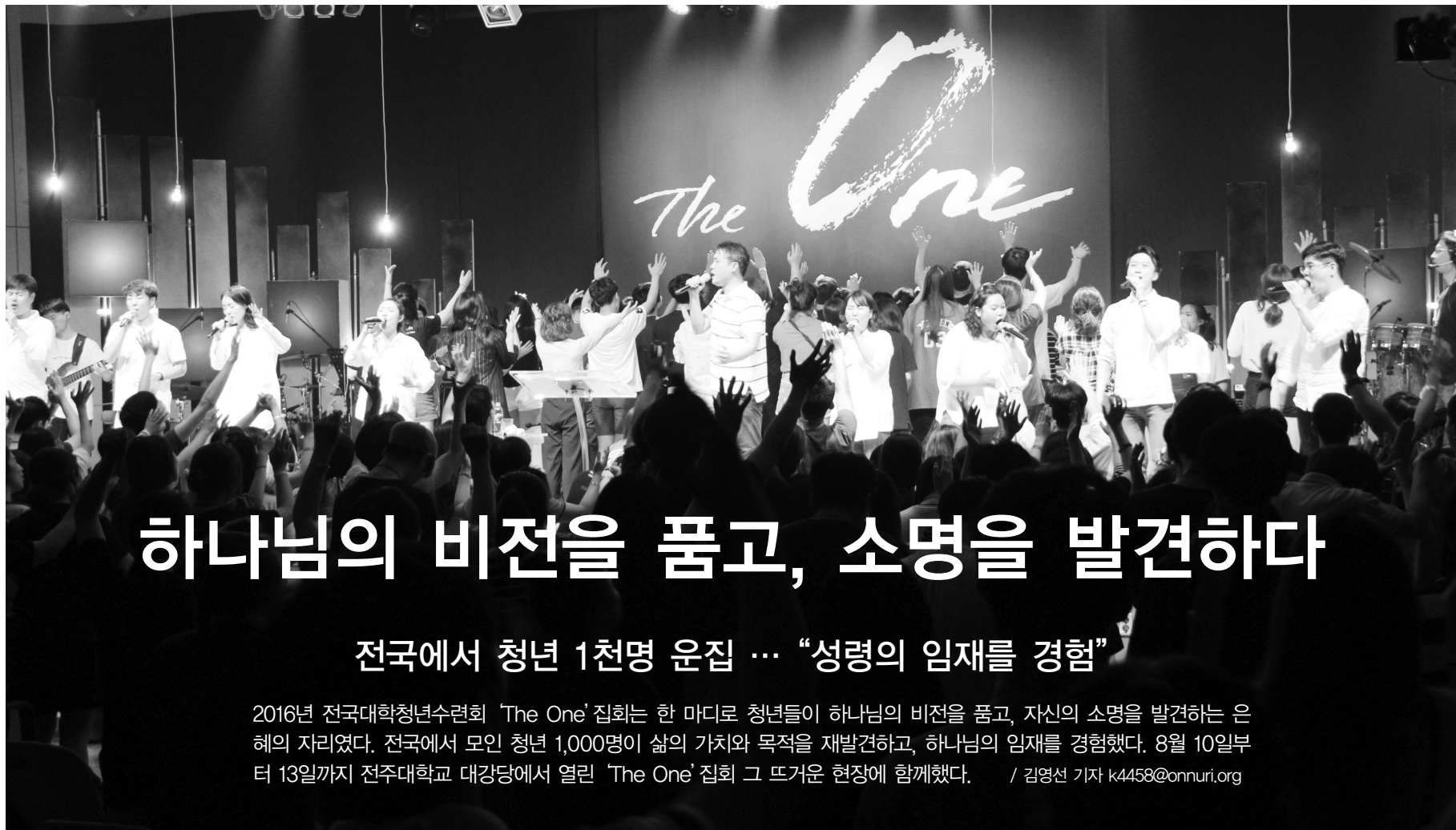
이재훈 담임목사는 “김형철 목사가말로 Acts29 비전을 품고, 함께 써나가는 교회를 만드는데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형철 목사는 부임사에서 “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관 온누리교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데이비드 오웬 총장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Pacific Islands University와 관 온누리교회가 협력해서 선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형철 목사는 2014년 12월부터 관 온



누리교회를 담당목사로 섬기다 담임목사로 위임됐다.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네이퍼빌시카고 이중재

목사에 이어 책임목회자에 의한 네 번째 담임목사 위임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소명을 발견하다

전국에서 청년 1천명 운집 ... “성령의 임재를 경험”

2016년 전국대학청년수련회 ‘The One’ 집회는 한 마디로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는 은혜의 자리였다. 전국에서 모인 청년 1,000명이 삶의 가치와 목적을 재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The One’ 집회 그 뜨거운 현장에 함께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지난 10일, 2016년 전국대학청년수련회 ‘The One’ 집회(이하 The One 집회)가 열린 전주대학교에 전국 각지에서 온 청년 1,000명이 모였다. 2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The One’ 집회를 앞둔 청년들의 표정에 설렘이 가득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상기된 얼굴로 접수를 기다리는 청년들이 있었다. 대전 노은중앙장로교회에서 온 청년들이었다.

“2년 동안 ‘The One’ 집회를 목 빠지게 기다렸거든요.”

대전 노은중앙장로교회는 청년들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은 교회인데 ‘The One’ 집회에 40명이나 참석했다. 노은중앙장로교회 청년 대부분이 참석한 것이다. 2014년부터 ‘The One’ 집회를 사모하기 시작했다. 노은중앙장로교회 조희연(22세) 자매는 2014년 열린 ‘The One’ 집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프리카 아이들을 섬기라’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삶으로 사명을 실천하고 있다.

“하나님의 비전을 달라는 기도제목과 가지고 지난번 ‘The One’ 집회에 참석했는데 기도하던 중에 제가 아프리카 아이들을 품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아프리카에 관심을 갖고 공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에트리카’라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는 사회적 기업에서 인턴활동도 시작합니다. 꿈 없이 살던 제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사명의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The One’ 집회 덕분 아니겠어요?”

조희연 자매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명을 이뤄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노은중앙장로교회 청년들이 ‘The One’ 집회를 사모하는 것은 당연지사. 매주 토요일마다 ‘The One’ 집회를 위한 기도회를 열고 참가준비를 했을 만큼 열정이 대단했다.

조희연 자매는 “지방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The One’ 집회만큼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기회는 드물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The One’ 집회에 참석해 하나님의 비전을 품



고, 사명을 발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로 받고, 용기 얻고, 회개하고

‘임재’를 주제로 진행된 이용규 선교사의 강의로 포문을 연 ‘The One’ 집회에서는 3일 동안 내로라하는 강사들의 강의가 이어졌다. 임은미 선교사 ‘도전’, 이한영 교수 ‘복음’, 김하중 장로 ‘청년’, 최하진 선교사 ‘선교’, 김건희 ‘청년선교’, 김승수 목사 ‘성령’, 하형록 회장 ‘비전’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뿐만 아니라 리더십, 전도, 이단, 이성교제를 주제로 선택식 특강도 이어졌다. 마커스, 김도현, 지미선, 소울싱어즈의 찬양콘서트도 열렸다. 말 그대로 3박 4일 동안 말씀, 기도,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세상의 것을 좇지 않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라”는 김하중 장로의 강의에 취업준비중인 청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올해 12월 세 번째 임용고시를 준비 중인 김민아 자매(25세, 부안 제일교회)는 “사실 The One 집회에 참석하기 전까지 임용고시에 합격할 수 있을지 불안해 자존감과 신앙심이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김하중 장로님의 강의를 듣고 큰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취업준비생인 도민구 형제(25세, 대전 은평장로교회)는 “학연, 지연, 혈연을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김하중 장로의 강의를 듣고 그동안 교

회에서 쌓은 인맥이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회개했다”고 고백했다.

‘The One’ 집회의 유익과 힘

‘The One’ 집회의 마지막은 저녁집회가 장식했다. 참가자들이 그 집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마지막 날 저녁집회는 김승수 목사(대학청년부 본부장)가 ‘성령’을 주제로 인도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님과 교제하십시오.”

김승수 목사의 권면에 전국에서 모인 청년 1,000명이 두 손을 들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했다. 단상 위, 단상 앞 할 것 없이 집회장 곳곳에서 뜨거운 기도소리가 터져 나왔다.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은 청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줬다.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온 몸이 떨렸다.

단상 위에서 뜨겁게 기도하던 한 자매를 만났다. 제주도에서 온 정은지 자매(20세, 참좋은교회)였다. 그녀에게 집회에 참석한 소감이 어떨냐는 질문에 눈물부터 떨어졌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녀로서의 소명을 발견했다”면서 감사와 행복과 기쁨을 눈물을 흘렸다.

정은지 자매는 중국 인민대학교에서 유학 중이다. 방학을 맞아 고향인 제주도에서 가족들과 생활하고 있는데 말 못할 고민이 있어 이번 집회에 참석했다. 중국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말

씀만 붙잡고 사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한국에만 오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 말씀도 안 읽게 되고, 기도도 잘 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하던 중에 ‘The One’ 집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참가했다. 청소년 시절 온누리교회 ‘Passion’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었기에 한 치의 고민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번 집회에서 그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 정말 간절했다. 그런데 그리 쉽지 않았다.

“셋째 날 저녁까지도 기도가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기도가 끊기고, 찬양을 하는데도 경배가 되지 않더라고요. 사탄의 방해라고 생각하고 3일내내 대적기도를 했습니다.”

수련회 마지막이 다가오는데 그 고민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해 마음이 조금해졌다. 그렇게 마지막 날 저녁집회를 맞이했다.

“나도 충분히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라”는 김승수 목사의 간증을 듣는데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자란 나를 쓰실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가 술술 이어지고, 수련 전부터 갈급해 하던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첫 걸음은 유학생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 자신이 있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정은지 자매처럼 ‘The One’ 집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자신의 소명을 발견했다. 집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의 얼굴에 벌써부터 기대감이 엿보였다. 권세연(26세, 대전 은평장로교회) 자매는 “다음 ‘The One’ 집회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라고 소감을 밝히고 버스에 올랐다. 이것이 바로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가 주최하는 ‘The One’ 집회의 유익이요, 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누리M미션 연합세례식, 외국인 근로자 13명 세례 받아

지난해 한국에 온 한턴 형제(캄보디아)는 술과 약물, 그리고 싸움에 빠져 살았다. 그렇게 방황하던 그가 형을 따라 안산M센터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달라졌다. 예수 만난 기쁨이 충만해졌다. 지난 8월 7일은 그에게 역사적인 날이다. 온누리M미션 연합세례식에서 세례를 받은 것. 한턴 형제를 포함해 안산M센터에서 열린 온누리M미션 연합세례식에서 5개국(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13명이 세례 받고 전국 시민이 되었다.

연합세례식은 세례 간증, 말씀, 축사, 서약, 침례식, 세례증서 수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연합세례식에서 노규석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노 목사는 “오늘의 세



세례를 받은 한턴형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됨을 인정받았다”며 “날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고 권면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세례를 축하하러 온 추교명 장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외국인들을 통해 그들의 가족과 나라도 복음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례 받은 허문자 성도(중국)는 “세례 받고 새사람이 돼서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다”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죽는 날까지 주님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간증

늘 문제를 일으키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내 삶은 외롭고 불안했다. 부모님조차 나를 믿지 못했다. 술과 담배, 약물에 절여 살았다. 수시로 싸움도 했다. 그렇게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다. 그런 내가 형 덕분엔 하나님을 만났다. 형은 2년 전 한국에 왔는데 그때부터 안산M센터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해에 세례를 받았다. 작년 여름에는 안산M센터 목사님과 형이 캄보디아까지 우리 가족을 찾아왔다. 그때 형과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만약 내가 한국으로 일하러 가게 된다면 안산M센터를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가을 나는 한국으로 일하러 오게 되었고 형을 따라 안산M센터에 왔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지금 나는 매우 행복하다. 형제자매들과 더욱 친해졌다. 그들이 나의 가족처럼 느껴진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은 나의 기도엔 응답해주셨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유일한 진리인 하나님과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 한턴(캄보디아 출신)

JDS 예수제자의 밤 행사 개최

15개국 41개 지역 다녀온 아웃리치 보고회

예수제자학교(JDS: Jesus Disciple School)가 지난 16일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예수제자의 밤(Disciple’s Day)’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예수제자학교(JDS) 제자 505명이 15개국 41개 지역으로 다녀 온 아웃리치 보고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종길 목사는 “예수제자학교 훈련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서빙고 두란노서점 새단장

서빙고 두란노서점이 확 달라졌다. 10년 만에 새 단장을 마치고 지난 16일 오픈했다. 천장이 70~80cm 높아져 시야가 확 트였고,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헬거워진 책장도 새로 바꿨다. 가로 방향으로 놓여 있던 계

산대도 정면으로 위치를 바꾸었다.

홍주영 지점장은 “온누리교회 성도들께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면서 “더 좋은 책과 상품으로 성도들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 이소정 기자

NGO 더멋진세상, 구개구순열 치료 지원

생후 10개월 부부쌍우 수술 성공적

아프리카 세네갈 본나바마에 사는 부부쌍우(생후 10개월)가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멋진세상의 도움으로 구개구순열 수술을 받았다. 부부쌍우는 선천적 구개구순열로 엄마 젖을 물기도 힘들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의료시설 등으로 뽕족한 방법이 없었는데 세네갈 본나바마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 더멋진세상을 만나면서 희망이 생겼다. NGO 더멋진세상이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생명 살리기 사업의 주인공인 부부쌍우는 지난달 14일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부부쌍우.

제23기 전도폭발 훈련생 모집

주간반 8월 30일, 저녁반 8월 31일 개강

전도사역본부에서 제23기 전도폭발 훈련생을 모집한다. 제23기 전도폭발 훈련은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주간반은 8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야간반은 8월 31일부터 12월 7일까지 매

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콘서트홀(신관 지하2층)에서 진행된다. 회비는 7만 원. 아이스쿨(www.ion-nuri.org)에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2-3215-3214

은빛날개세미나 7기 개강

7기 은빛날개세미나가 9월 2일부터 4주 동안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서빙고 온누리교회 홍보관에서 진행된다. 은빛날개세미나는 은퇴했거나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30대 이상 성도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 은빛날개세미나는 자신의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되돌아보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자리와 관계를 만들어가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문의: 02-3215-3436

/ 이소정 기자

■ 2016년 하반기 공동체 개강예배 일정 ■

서빙고				양재			
날 짜	공동체	장소	시간	날 짜	공동체	장소	시간
8월30일	중종로	두란노홀	오후 6시	8월27일	서초D	화평홀	오후 4시
8월30일	관악금천	시온홀	오후 6시	8월 30일	서초C	드림홀	오후 6시
9월1일	광명	광명은광교회	오후 7시	8월30일	양재	화평홀	오후 7시
9월1일	노원	상현교회	오후 7시	8월31일	과천의왕	드림홀	저녁 7시
9월1일	웅산	두란노홀	오후 6시	9월1일	산본안산	온유홀	저녁 7시
9월1일	동대문중랑	한동홀	오후 6시	9월1일	안양평촌	드림홀	저녁 7시
9월1일	양천	비전홀	오후 6시	9월2일	분당B	드림홀	저녁 6시
9월2일	여의도	두란노홀	오후 6시	9월2일	서초B	화평홀	저녁 7시
9월2일	이촌	시온홀	오후 6시	9월2일	강남C	온유홀	저녁 8시
9월2일	S브릿지	한동홀	오후 6시	9월2일	POINT5	도곡 온유홀	저녁 8시
9월2일	성북	비전홀	오후 6시	9월4일	푸른누리	온유홀	오후 3시30분
9월3일	김포	김포태광교회	오후 1시	9월4일	특별한초대	민음홀	오후 5시
9월3일	찬양사역	성가대실	오후 2시	9월4일	하모니	비전홀B	오후 5시
9월4일	북누리	북누리비전센터	오후 5시	9월6일	강남A	온유홀	저녁 7시
9월4일	일산	일산비전센터	오후 6시	9월7일	서초A	화평홀	저녁 7시
9월6일	서대문	한동홀	오후 6시	9월7일	강남D	온유홀	저녁 7시
9월6일	이수	EM홍보관	오후 6시	9월7일	강남B	드림홀	저녁 7시
9월6일	가정사역	두란노홀	오후 6시	9월9일	CMN	드림홀	저녁 7시
9월8일	한강	두란노홀	오후 6시	9월10일	송파	화평홀	저녁 5시
9월8일	마포	한동홀	오후 6시	캠퍼스			
9월8일	성동광진	비전홀	오후 6시	9월4일	부천 공동체연합	본당	오후 7시
9월9일	강촌	두란노홀	오후 6시	9월2일	수원 공동체연합	본당	오후 7시
9월9일	특별한초대	한동홀	오후 6시	9월9일	대전 동누리공동체	비전홀	오후 7시30분
9월9일	서빙고	시온홀	오후 6시	8월27일	대전 유성공동체	본당	오후 7시
9월9일	동작	비전홀	오후 6시	9월9일	대전 중서공동체	본당	오후 7시30분
9월10일	신용산	한동홀	오후 6시	9월9일	남양주	본당	오후 8시
9월10일	강서	시온홀	오후 6시	9월4일	평택	본당	오후 4시
9월10일	영등포구로	두란노홀	오후 6시	9월2일	인천 공동체연합	프리스페이스 6층 비전홀	오후 7시30분
9월10일	고양은평	일산비전센터	오후 6시	9월8일	강동B	본당	오후 7시
※ 양재 분당A공동체 개강예배는 다락방별로 진행				9월9일	강동A	사랑홀	오후 7시
				8월28일	양지	박모세홀	오후 2시

장로칼럼

주신 사명을 좇아서



박봉래 장로
(영등포구로공동체)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시설을 활용해 신제품을 만드는 일을 ‘프로덕트 아웃’이라고 한다. 같은 신제품이지만 시장 상황과 조건, 소비자의 요구를 충실하게 파악한 뒤 진심을 담아 만든 제품을 출시하는 일을 ‘마켓 인’이라고 한다. 기업의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어떤 제품이 필요합니까? 당신이 필요로 하는 제품이 여기 있습니다”라며 쌍방향 운영 개념이 바로 마켓 인이다. 마케팅의 구루(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 자아를 터득한 영적지도자 혹은 스승을 뜻함) 테드 레빗이 “팔리지 않는 상품은 박물관에 전시된 박제품에 불과하다”고 한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일진대, 심화된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품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얼어붙은 소비자의 지갑을 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을 닮은 남과 여로 각각 창조하셨다. 여기에서 형상이란 생각이나 느낌 따위가 드러난 얼굴모양을 말한다. 얼(spirit)의 꼴(shape)을 갖추기 위해 친히 코에 생기까지 불어넣어 주셨다. 자식을 많이 낳아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축원하시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사명을 더하셨다. 그러고는 아주 만족하셨다. 당신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바라보며 스스로도 매우 흡족하신 미소와 함께 “배리 굿”을 연발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음할 수 있는 대목들이다. 사람은 분명 지존의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심을 듬뿍 담아낸 마켓 인의 소산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른바 맞춤 생산을 하신 것이다.

최근 먼 나라 이야기로만 여겨왔던 동성애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동성애자들은 자

신들의 성적 쾌락을 정당화하기 위해 진보세력과 연대하고, 정치 세력화해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상 패배가 너무 크다. 자식을 많이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간극이 너무나 크다. 자녀의 출생을 놓고 자축하셨던 자식바보 하나님께서 이 경우를 보시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며 비감을 털어놓으시지 않았을까. 쿼어축제를 허가한 책임당국자는 본인의 자녀가 동성애자를 배우자로 선택했다며 동의를 요청했을 때 “오, 은혜로다”라며 연호할 수 있을까. 동성애자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소수자인지는 논외로 치더라도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공동체마다 선교지로 나서며 분주하게 보내고 있다. 선교라는 시든 상품을 계절 캠페인처럼 방출하고, 단순한 프로그램 소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도 해야 한다. 아웃리치도 대상 지역을 고려한 마켓 인 전략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혀 받지 못한 땅 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은 자녀들을 혼자 사역하도록 놔두지 않고 당신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것도 한시적이지 아니라 세상 끝 날까지로 명시하여 약속하셨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당부와 함께 말이다. 하나님의 피조물 영역 안에는 분명 땅 끝도 포함된 것을 헤아린다면 주저함 없이 달려가야 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에 일획의 오차도 없이 정확무오하게 시행하시는 분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되는 경쟁력을 지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을 따르는 일은 나를 지으신 이의 제작의 도에 맞추는 노력의 기본이며,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소비자가 사용설명서를 읽고 준비하는 것과 비슷하다. 모름지기 사용설명서를 제공 못 받고 살아가는 땅 끝의 형제자매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주이기도 하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부르름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권사칼럼

주님 한 분만으로



정진희 권사
(서빙고공동체)

주님 안에서는 다른 이를 유익하게 만드는 일에 마음을 쏟고 그 일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 나는 ‘무엇으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이 자원하라는 광고를 듣게 되었다. 한달음에 지원서를 냈다. 안내하는 선생님들이 어느 학년을 맡고 싶은지를 물어보며 명단을 보여줬다. 명단 맨 밑에 사랑부가 보였다. 나는 사랑부를 섬기고 싶다고 자원했다. 7주 동안 교육을 받고 사랑부 학생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사랑부를 늘 설레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데 ‘회전근개파열’이 생겨 통증이 매우 심해졌다. 아이들을 제대로 안아줄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사랑부 교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어깨가 회복되었고, 나는 사랑부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싶어졌다. 그 사이 사랑부 아이들이 어엿한 청년으로 자라기도 했다. 그곳으로 다시 달려갔더니 낮익은 선생님들이 반겨주셨다. 그곳에서 덕이라는 청년을 만났다. 덕이는 공과공부를 할 때면 내 말을 잘 알아들었고, 답도 확실하게 말했다. 덕이와 함께 기도에 대해 공부할 때였다.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는 덕이에게 나는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함께 기도했다. 덕이가 캠프에 함께 가지 못한 나에게 사진을 보내준 적이 있다. 자신이 그렸다는 사진을 들고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덕이가 그렸다는 사진을 보고 몹시 놀랐다. 나무를 그렸는데 너무나 생생하게 잘 그렸었다. 나는 덕이가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림 그리는데 소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덕이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 싶었다. 당장 나한테 있는 그림도구들을 찾아보려고 수납장을 열었더니 물건들이 짹짹 차 있었다. 더 들어갈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었다. 그 많은 물건들을 쓰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 내 욕심으로 저 물건들이 쓸모없게 되었구나’ 하는 반성을 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은 나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보였다.

BEE KOREA에서 21년 동안 공부하고 인도자로 섬기면서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은 말씀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배워가고 있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고, 공동체였다. 주님의 일은 모두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세우면서 나 또한 힘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이다. 덕이가 그림을 그리면, 음악을 하건, 혼자서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배워가기를 소망한다.

▶ 바로잡습니다

지난 8월 7일자 신문 권사칼럼 필자의 이름이 이현임 권사(양천공동체)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다시 한 번 필자에게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신앙에세이



강미향 목사
(S브릿지 담당)

내가 26세 되던 해 어느 봄날이었다. 맞선 장소에서 만나기로 한 남자는 나오지 않고 대타로 다른 남자가 나왔다. 나는 그 남자와 두 번 만난 뒤 청혼을 받았다. 만난 지 두 달 만에 약혼하고, 결혼에 골인했다. 당시 나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첫인상이 좋고, 똑똑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남자가 이상적인 남편상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러했다. 첫째, 첫인상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히 서있을 것 같았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신의 내면과 외면도 일치할 것이라고 믿었다. 둘째, 똑똑하면 가장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을 잘 할 것이고, 가정도 잘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남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부합된 사람이었다. 난 그의 청혼을 승낙했고 가정을 이루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나도 남편도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다. 서로가 꿈꿨던 배우자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결혼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왔다. 우리 부부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나의 내면에 잘못된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게 된 이유는 원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이었다. 나는 어르신들의 복잡한 가정사로 ‘남자는 절대 여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첫인상이 좋은 사람을 원했던 것이다. 또 남자가 똑똑해야 사회에서 성공하고, 돈도 잘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똑똑한 남자와 결혼하면 똑똑한 자녀

를 낳을 수 있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 남편을 만나면 나의 행복이 보장될 것이라고 여겼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나를 보석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청혼했다고 했다. 결혼하고 수년이 지난 뒤에 ‘저 여자와 살면 팔자 고치겠다’는 마음이 들어 결혼했다고 고백했다. 배우자를 자신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결혼을 결정했다. 그것이 우리 부부의 결혼동기였다. 우리 부부의 잘못된 동기는 무서운 죄와 같았다. 그 죄는 마음의 중심에 숨어서 갈등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성숙한 결혼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 누군가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함께 삶을 가꾸어 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더 잘 해 주고 싶고, 더 사랑해 주고 싶고, 더 성장시켜주고 싶은 사람을 만나

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배우자 기도를 이렇게 한다.

“좋은 배우자, 좋은 믿음의 가문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는 이것이다.

“제가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먼저 좋은 신앙의 가문을 이루고, 좋은 사돈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정에 대한 소명이 명확할 때 행복한 결혼이 시작된다.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일 4:19).

복된 결혼



CGNTV KNOCK 페이스북

마.음.을.두.드.리.는.이.야.기
KNOCK

찬양하는 바보청년 이태원 준섭이

예수바보 준섭이가 **춤추며 노래**하는 이유

“좋은 소식을기 때문에 모두에게 전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다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거리에서 만난 ‘단 한 영혼’에게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다면..

